제5강 : 형이상학에 대해 묻다

◆1교시 : 형이상학(meta-physica)이란 무엇인가

▲형이상학의 세계

제가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말이 되어있거든요. 반말로 하면 안 되겠죠. 반말로 하면 가깝게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형이상학(meta physic)의 세계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전 시간, 그 전 시간 두 번째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타자 속에서 질서를 찾는 존재라고 말했어. 그리고 질서를 찾기 위해 매개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지. 그런데 K! (K 그러니까 이상하죠? K가 누굴 말하는지.)철학은 질서와 매개자 찾기에서 다른 학문들과는 구별되는 학문적 태도를 지닌다는 점을 알아야 해. 이는 철학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야. 철학은 총체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학문이야.

'총체적'이라는 말이 좀 낯서니? '전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적'은 '전체주의'라든지 하는 말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 피하는 것뿐이어서 '전체적'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 철학은 개별적인 현상들을 다루지 않고 이들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큰 덩어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총체적'은 바로 '보편적'과 통해.

물론 총체 또는 전체는 개체와 구별되고 보편은 특수와 대비되는 용어여서 총체와 보편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어. 맥락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옳아. 그러니까 철학은 이를테면 '인간'을 다루지, 특정한 민족이나 개인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그래서 인간 전체, 사회 전체, 우주 전체 등을 다루기 때문에 그 연구 대상의 마지막 종착역은 '존재 전체', 즉 '존재 일반'을 다룬다는 거지.

철학은 세계와 우주의 끝까지 생각하는 학문이야. 세계와 우주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사고를 밀고 가는 극단적인 학문이지. 그래서 세계와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닫혀 있는가를 탐구하는 거지.

물론 물리학, 특히 이론 물리학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만 철학은 물리학처럼 물리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물리 현상을 넘어서 작동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요소나 원리를 찾고자 하는 데에서 철학은 출발했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영역을 철학에서는 오늘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철학은 태어날 때는 형이상학과 동일시되었어. '형이상학'은 영문으로 'meta-physic'이라고 적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글 '자연학' 또는 '물리학'(physic) '다음에 오는' 또는 이를 '넘어서는'(meta)이라는 뜻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형이상학은 특정한 현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www.artnstudy.com

것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존재 일반'을 다루기 때문에 '제 1의 학문'이라고 칭했던 것이고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존재 일반의 특성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형이상학적 사유가 사태 파악의 토대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어. '형이상학'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 전체에 대해 일리 있는 해명을 시도하는 학문' 정도로 일단 이해하기 바래.

지금 '형이상학'을 말하는 이유는 이번에 다룰 주제가 다분히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야. 매개의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이제는 멧돼지라든지 자연적 재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태가 아니라 이러한 개별적인 현상들을 포괄하는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타자의 매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철학이 형이상학의 성격을 띤다는 것, 즉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철학의 약점일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주로 경험적인 것에 모아지기 마련이어서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서 말하는 순간 낯설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지.

하지만 K! 경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것 밖으로 나아가야만 해. 물속에서만 사는 물고기는 물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잖아. 물 밖으로 나올 때에만 자기가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물의 속성을 알 수 있듯이 철학이 경험적인 것 밖으로 나가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적인 것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형이상학을 뜻하는 'meta-physic'의 'meta'는 '- 다음에'라는 본래의 뜻을 넘어 그 이후에는 '-을 넘어서는' 그리고 '-에 대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철학의 이러한 메타적 특성은 철학의 본령을 이루게 되었어. 따라서 형이상학은 경험적인 현상과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이들이 진실로 무엇에 근거하고 또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험적인 세계의 설명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지 하는 등의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사실을 검토하지.

이를 통하여 형이상학은 경험적인 현상과 지식의 위상과 정체를 밝혀 이들이 총체적인 세계 안에서 지니는 의미를 탐구하게 되지. 다만 형이상학적인 설명은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세계를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세계에 주목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 형이상학적인 관심은 단순히 경험적인 것의 근거를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타자의 매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경험적인 것 배후를 살피는 일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타자의 '무엇'을 매개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형이상학이 경험적인 것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까지 관여한다는 사실

www.artnstudy.com

이 중요해. 그러니까 타자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맹이에 접근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형이상학은 타자를 매개하는 데에서 가장 근원적인 최상의 원리를 찾아가게 되는 셈이지.

meta-physic으로서의 철학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철학이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meta-physic이라는 말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숨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철학은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형이상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의 소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힘

셍 텍쥐페리의 『어린왕자』 맨 앞부분에 나오는 보아 구렁이 이야기 알고 있니? 어린왕자가 모자처럼 생긴 그림을 그려보이자 그걸 본 어른은 '모자'라고 했지만 그 그림은 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어린왕자』 전체에 걸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지.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거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야."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

『어린왕자』의 이런 말들은 물론 세계를 머리, 즉 차디찬 이성으로 대하지 말고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은 우리의 주제를 펼치는 데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뿐이어서 믿을 수 없다니, 왜 그럴까?

어린왕자가 그린 그림을 '보이는 대로' '모자'라고 하면 틀리는 걸까? 틀리다면 왜 틀리는 걸까? 보이는 것 속에 코끼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자 형태의 어떤 것 속에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는 것과 속에 감추어진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그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겠지. 암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일은 철학적 사유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해. K! 만일 늑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네 어린 동생이 동물원에서 늑대를 처음 보고는, 어 저기 '개 있다!'라고 하면 넌 의젓하게 '저건 개가 아니고 늑대야!' 하고 한 수 가르치겠지.

얼핏 보이는 것만으로는 개와 늑대를 구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눈으로는 잘 식별되지 않는 개와 늑대의 차이를 넌 예민하게 감지했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자신 있게 수정할

www.artnstudy.com

수 있었겠지. 그런데 너도 눈치 챘겠지만 이런 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아. 자세히 '보면' 늑대는 개와 다른 외형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니까. 모두 보이는 것의 영역에 속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눈으로 금방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더 많고 그 경우가 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꽃을 보고나서야 그 꽃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그 '씨앗'만 보고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K 너는 개나리 씨와 진달래 씨를 눈으로 보고 구별할 수 있니?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물적인 것들은 그래도 '잘' 관찰하면 식별이 가능하다고 치자. 하지만 특히 인간세계의 현상들은 겉으로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 겉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그 속내를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야.

광고 내용이라든지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미팅에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과 겉의 차이가 심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속을 판단할 수 없어. 'Read between the line!'이라든지 '신문을 거꾸로 들고 읽어라!' 하는 말들을 왜 했겠니.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

어릴 때 자주 이런 말을 듣잖아. 사탕사준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저씨를 따라가서는 큰 일 난다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이런 말도 있었어. 지나치게 선심을 쓰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시오. 그가 간첩일지 모르니까. 이런 썰렁한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도 이해하겠지.

철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일찌감치 지적했어. 보이는 것에는 진리가 없다. 보이지 않는 데에서 진리를 찾아라! 왜 그랬을까? 보이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그 반대겠지. 그렇다면 왜 보이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을까?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은 어떤 특성을 지녔길래 믿을 수 없는 걸까?

지각은 '변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지. '사탕 사준다'는 아저씨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고 친절을 베푼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다만 그 아저씨의 태도가 언젠가는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각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것은 항구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이고 불변적인 뿌리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보이는 것은 보는 이의 시각과 시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한다는 것이 문제지. 철학은 이렇게 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불변적인 것, 영원한 것, 보편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주목해. 왜 그렇겠어? 맨 앞에서 내가 철학의 경제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지. 물론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 일반이 그렇지만 말이야.

www.artnstudy.com

지각되는 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평생을 좇아도 그걸 묘사하는 데 끌려다니 보면 끝이 없지 않겠니? 여행은 그래서 본래 철학자와 별 상관이 없어. 앞에서 말한 칸트 선생은 평생 자기가 살던 마을 쾨닉스베르크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훌륭한 철학 사상을 내놓았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니? 세계를 구석구석 많이 관찰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 눈으로 살핀다고 해서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야. 감각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철학자는 게으르기도 하지만 그게 별무신통이라고 여겼던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진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야.

▲비판의 근거로서의 meta-physic

이 현상계가 가지고 있는 거짓, 허위의 문제. 이것이 철학적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겉으로 표현된 것. 신문을 거꾸로 읽으라던 지, "사실은 이것이 이것입니다."하고 내놓는데, 배후에는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의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철학의 '비판학'으로서의 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단순히 어떤 것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준거점으로써 배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eta-physic, 형이상학이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 말하는가? 그것은 현실세계를 넘어서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면서, 현실적으로 주어져있는 세계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스의 허위의식 비판이라던 지, 프로이트의 의식세계 비판이라던 지. 그런 것들은 전부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막스의 허위의식 비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이라고 말해지는 그것에 감추어져있는 허위성.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의식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위성. 그것의 허위성은 무의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막스의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에 조장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위장시키는 그런 자본가. 유산계급들의 위(僞)에 대해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다른 원칙을 발견함으로써, 가짜라고 쳐버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meta-theory로서의 철학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현상과 본질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www.artnstudy.com